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22.11.21.(월) 한국경제TV

“尹정부, 코인세 미룬다더니... 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